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후보가 지난달 30일 포미타운 사거리에서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와 합동유세회를 벌이고 있다. <강성휘 후보 측 제공>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가 지난달 28일 25호 광장에서 "일 잘하는 젊은 시장 윤선웅을 뽑아달라"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윤선웅 후보 측 제공>



조국혁신당 박홍률 후보가 지난달 28일 목포시 이마트 오거리에 서 유세 차량에 올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박홍률 후보 측 제공>



정의당 여인두 목포시장 후보가 지난달 21일 신흥동 일대에서 백동규 목포시 의원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지지를 당부하고 있다. <여인두 후보 측 제공>

다자구도 속 '일꾼론' 확산... 4人4色 비전 경쟁 치열

6·3 지방선거 격전지

<10>목포시장

6·3 지방선거 목포시장 선거는 탄탄한 의정 경험을 앞세워 시장직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성휘 후보와 민선 6·8기 목포시장을 지낸 조국혁신당 박홍률 후보가 맞붙는 가운데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와 정의당 여인두 후보까지 가세, 4자 대결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

전남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목포는 민선 8기 시장의 당선 무효 이후 행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어 정치적 구호보다는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일꾼형 리더'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들 간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과 리더십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강성휘 후보는 제6·7·8대 목포시의

행정 공백 여파 '일꾼형 리더' 요구 커

강성휘, 의정 경험 바탕 "목포 대전환"

윤선웅 "원도심 재생·스마트시티 조성"

박홍률, 서남권 통합 앞세워 재기 노려

여인두, 시민주권도시·통합돌봄 차별화

원, 제9·10대 전남도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비서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강 후보는 '목포의 지도를 다시 그려 시민의 지갑을 든든하게'를 핵심 기조로 목포 대전환 비전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으로 청년형 신설 및 청년정책 컨트론타워 구축, 김 산업 메카 구축·수산물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상가·주거지 공영주차장 확충, 목포사랑상품권 1천억원 발행·골목경제 회복, 무안반도 광역생활권 추진 등을 내걸었다.

강성휘 후보는 "목포산향을 해상풍력 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고 김 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전략산업으로 키워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살리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윤선웅 후보는 도시재생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윤 후보는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도시재생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과 제22대 총선 목포 국회의원 후보 등을 지냈다. 현재 목포대학교 금융보험학과 시간강사와 한전KDN 비상임이사로서 활동 중이다.

주요 공약은 원도심 중심 도시재생, 하당·남악·옥암·임성지구 역세권 개발 및 친환경 스마트시티 조성, 제2의 대양산단 조성을 통한 지역 일자리 해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다음 세대 도약 방안 마련 등이다.

윤선웅 후보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식물원을 조성하고 무가선 트램을 도입하겠다"며 "관광객 유치와 함께 노인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새로운 관광·상권 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조국혁신당 박홍률 후보는 민선 6·8기 목포시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다.

목포중, 목포고, 조선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박 후보는 목포덕인고 교사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육상연맹 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조국혁신당 당대표 정무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박 후보는 배우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3월 시장직을 상실한 뒤 이번 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로 다시 출마해 설욕에 사활을 걸고 있다.

에너지 융복합 경제도시 대전환, 젊은 목포 구현, 유엔 AI 허브 유치, 서남권 통합으로 큰 목포 건설, 목포대 의과대학·대학병원 유치, 관광객이 머무는 전국 제1의 해양관광도시 건설 등을 공약했다.

박홍률 후보는 "민선 8기 임기를 마치지 못한 데 대해 시민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해

상풍력과 AI-RE100 산업 등 서남권 대전환의 시기에 경험 있는 시장으로서 목포가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인두 후보는 시민 참여와 복지, 지역 순환경제를 중심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대불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학위를 취득한 여 후보는 제9·10대 목포시의원, 목포대총학생회장 등을 지냈다. 현재 정의당 목포시위원회 위원장, 사회대개혁을 위한 목포시 민주권행동 공동대표, 노회찬재단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 후보의 주요 공약은 K-목포 국제문화도시, 시민의 하루를 연결하는 이동혁신도시, 골목이 살아나는 지역순환경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사는 통합돌봄도시, 시민이 결정하는 시민주권도시 등이다.

여인두 후보는 "목포 발전을 이야기해 온 정치 세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라며 "젊은 시장, 젊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을 바탕으로 문화경제와 평등복지, 소통 중심의 시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변은진 기자

민형배, 3대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 제시

응급실 뺑뺑이·교통불편·생활밀착형 서비스 공백 해소

"일상 속 변화 체감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현" 약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1일 시민들이 통합특별시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민 후보는 시민주권과 함께 '시민효능감'을 통합특별시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설정했다. 시민

주권이 시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힘이라면, 시민효능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3대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과제는 '응급실 뺑뺑이 없는 특별시'다. 전남광주 전역의 응급의료기관을 하나의 통합 응급의료망으로 연결하고 119와 병원, 응급의료기관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책임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에 대한 통합관제체계를 마련하고 섬과 농어촌 지역에

는 닥터헬기와 소방헬기, 해경, 중환자 전담구급차를 연계한 입체 응급이송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두 번째 과제는 전남광주형 통합 공공교통 플랫폼 '올타(ALL-TA)' 구축이다. 버스, 철도, BRT, DRT, 택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해 시민이 출발지와 목적지만 입력하면 가장 빠르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과제는 '이동 점빵(돌봄 편의점)' 사업이다.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는 농어촌과 섬마을을 찾아가 생필품과 식료품을 공급하고, 복지상담과 안부 확인까지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구축할 방침이다.

민 후보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시민효능감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AI를 시민 효능감을 높이는 기술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대한민국 최초로 '시민효능감지수'를 도입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형배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특별시인 만큼 혁신도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이 결정하고 특별시가 해결하는 도시, 시민이 일상 속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도시, 세계에서 가장 시민효능감이 높은 특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재정 기자

신고전화
국번없이 1332

당신은 목적자입니다.

자동차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기간 26. 3. 25. ~ 10. 31.

병의원 관계자
5,000만원

정비렌터카 관계자
3,000만원

차주·운전자·동승자
1,000만원

지금 기준 수사 확정 또는 진행 / 구체적 증거 제공 / 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

자동차 보험사기를 봤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